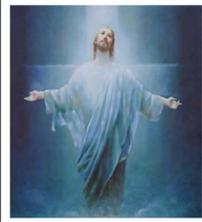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성령 강림 대축일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 주시어,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소서.



5월 기도지향

- 유길수 크리스토퍼, 유경애 아녜스 가정
- 고영방 스테파노, 김명은 안젤라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우리가 무관심의 문화를 거부하고 고통 받는 우리 이웃, 특히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도록 기도합니다.

성모성월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 성월로 지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시기에 묵주기도와 성모 성월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권고합니다.

성령 칠은(이사 11,1-3 참조)

- **글썩**: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지키도록 용기를 주는 은사
 - **두려워함**: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멀어짐을 경계하는 은사
 - **슬기**: 하느님의 뜻대로 판단하게 하고 구원이 필요한 일에 이끌리게 하는 은사
 - **의견**: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은사
 - **지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해 주는 은사
 - **통달**: 하느님의 계시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은사
 - **효경**: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과 연관된 사람이나 사물을 존중하게 해 주는 은사
- ☞ 성령의 열매 :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갈라 5,22-23)

Holy Trinity 본당의 날

- 일시 : 6/6(토) 오후 4시 30분부터
- 장소 : 초등학교 주차장
- ☞ 미사와 성체거동, 바비큐 파티가 준비됩니다.

“성령 안에 말씀과 함께” 피정

- 일시 : 6/26(금)~28(일)
- 강사 :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님(오스틴 한인본당, TX)

기타

- 하이스쿨 졸업을 축하합니다. 정재훈(루카), 김민정(리디아), 서재현(글라라), 이소운(미카엘라)
- 사제관 리노베이션을 위해 도내이션 해 주시고, 봉사로써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구 조립을 할 예정입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47	511	154/504	493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예찬 미카엘 정채린 소피아	정수한 베드로 김준영 요셉
차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정예진 한나	안광민 야고보 정병훈 보니파시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 카타리나	김아람 크리스티나 은유나 요안나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태중 예레미아 김시연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차주	백문주, 최은미, 박옥희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5/17	75명	357불	840불
김대성, 김진미, 박재천, 차호섭, 주영길(총 5세대)			

☞ 특별헌금 : 200불(박혜주 수산나)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어 그들을 변화시키셨는데, 성령을 받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담대하게 증언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념합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 같은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시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시다.

그림 묵상

성령의 은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잃고空空 숨어지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새로운 선물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온 세상에 주님을 전파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은혜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미연 소화대리사

제 1 독서 : 사도행전 2,1-11

<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화 답 송 :



주님 - 당신 열 을 보내 시 - 고 누 리 의 모습 을 새 롭 게 하 소 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크시고 크시어라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많고도 많건마는 온 땅에 당신 조물 가득 차 있나이다. ◎

○ 열을 거두시면 그들은 숨겨버려 드디어 티끌로 돌아가고 마나이다.
보내시는 당신 열에 그들은 창조되어 누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주님께서서는 이루신 일 기뻐하소서.
이 노래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주님 안에서 저는 즐거우리이다. ◎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12,3ㄷ-7.12-13<또는 갈라 5,16ㄷ-25>

<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

요한 20,19-23<또는 15,26-27; 16,12-15>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



“일치를 위한 성령”



오늘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냅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축일일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통해 교회 역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제1독서인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을 듣게 됩니다. 유다교의 축제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다고 전하는 사도행전은 사건 자체보다는 그 결과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의 전부입니다. 성령은 구약성경에서 주님의 현존을 상징하던 불(꽃)의 모양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던 모든 이들에게 내려옵니다. 이후에는 많은 내용을 소개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혀 모양으로 내려온 성령, 그것에 맞게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을 쓰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같ıl래야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이 표현에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내용적으로 성령 강림의 효과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을 쓰던 사람들은 모여서 모의합니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표현은 바벨탑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고, 그것의 결과로 온 땅으로 흩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시작부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기 때문이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욕심의 결과로 인한 분열을, 그리고 성령 강림은 그 분열로부터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듣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일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곧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는 여럿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은 하나의 성령입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다양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마치 오늘 복음은 성령을 통해 얻게 될 일치가 용서를 바탕으로 한다고 전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성령은 일치를 위한 것입니다. 분열된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화해하는 것이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 승천, 성령의 강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죽음으로 표현되는 악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임을 보여주는 부활과 승천, 또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의 강림은 서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용서와 일치와 구원. 부활시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구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 3 편 자기 성화

제 7장 죄를 짓는 자는 자신에게 원수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바로 저희 자신에게 원수가 된다(토빗 12,10).”

【주석】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 :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나 결국 “자신에게 원수가” 된다. 죄는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약하게 하며, 하느님에 대한 관계, 이웃에 대한 관계를 해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59항).

【설명】

아담과 하와는 교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다. 사울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으나, 하느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만다. 죄는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만다. 죄의 해악을 피하는 길은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야고 4,8).

▶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1요한 1,8-9).

【교회의 가르침】

▶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49항).

▶ 죽을죄(대죄)는 하느님의 법을 크게 어기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파괴한다. 죽을죄는, 인간이 하느님보다 못한 것을 하느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그의 최종 목적이며 행복이신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한다. 용서받을 죄(소죄)는 사랑을 어기고 해치기는 하지만 사랑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55항).

▶ 일부러, 곧 그것을 알고 그것을 원해서 하느님의 법과 인간의 최종 목적에 어긋나는 중대한 일을 선택하는 것은 ‘죽을죄’(대죄)를 짓는 것이다. 죽을죄는 우리 안에서 사랑을 파괴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뉘우침이 없다면 죽을죄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74항).

▶ 많은 죄들이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이를 갚기 위해서 가능한 일들을 해야 한다(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되돌려 주는 일, 모함당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 손해를 배상하는 일 등). 그러므로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실행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죄를 ‘보상’하거나 ‘속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갚음을 ‘보속’(補贖)이라고 부른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59항).

【어록】

▶ 인간은 육체를 지니고 사는 한 모든 죄를, 적어도 가벼운 죄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볍다고 말하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무게를 달 때에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수를 셀 때에는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가벼운 물건이 많이 모이면 큰 덩어리가 되고, 물방울이 많이 모이면 강을 채우고, 난알이 많이 모이면 산더미가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고백’인 것입니다(성 아우구스티노).